

국내기업의 친디아(Chindia) IT산업 진출 방안

김윤호^a, 이명무^b

^a한국의국어대학교 브릭스연계학과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82-32-215-7275, E-mail : kic555@empal.com

^b사이버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82-2-2173-2370, E-mail : leemm@hufs.ac.kr

Abstract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Chindia (China + India)의 IT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IT기업의 친디아 진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변수를 설정하여 진출의 활성화 정도를 위한 실증연구를 친디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디아 진출의 주요 성공요인을 보면, 중국의 경우 정보기술 전문성, 혁신 선도자, 기업의 영향력, 산업유형, 한국에 대한 친밀도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인도는 혁신 선도자, 기업의 영향력, 경과시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정도 순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 진출기업에 비해 학습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중국 진출 기업은 인도에 비해 정책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주요성공요인 중에서 중국은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 인도는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진출의 활성화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Keywords :

Chindia, IT Industry, CSFs, BRICs

I. 서론

중국과 인도는 최근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인력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들은 세계 각지로 분산되어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R&D 중심의 세계 인력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비약적

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어렵지만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친디아는 아직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EIU(Economist 부설경제연구소)는 2020년경 중국과 인도는 1,500억 달러의 신차를 구매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경제 자유화를 이룩한 인도는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대표되는 IT산업과 IT 관련 서비스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과 글로벌기업의 자본 및 제조공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는 IT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미국 대기업의 콜센터 및 IDC(Internet Data Center)를 유치하면서 세계의 IT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기업의 친디아 진출 또는 친디아 IT기업과의 합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의 IT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 두 국가의 IT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과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적응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친디아 IT산업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국내 IT기업의 친디아 진출 현황과 친디아 관련 정책을 친디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중국과 인도 IT산업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며, 친디아의 IT산업과 한국 IT산업간 교류를 확대시키고 한국-친디아 기업 간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헌 연구

2.1 중국과 인도의 IT산업 개관

인구 13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은 개방정책 실시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IT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세계 1위의 이동통신가입자, 2위의 인터넷 이용인구 보유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세계 최대의 IT하드웨어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표 1> 중국과 인도의 IT산업 비교

항 목	중 국	인 도
노동력,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 발전단계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다 △ 발전단계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보급률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 교육시스템 질 우수(이공계, MBA등) △ 교육 보급률은 발전단계에 걸맞지만 절대 수준이 낮음
수출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적 제품, 조립가공 제품, 교적 낮은 수준의 소재 △ 통합형 하이테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제조 등 노동집약형제품, IT S/W, 시스템개발 △ 보다 수준있는 공업 제품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단계 상응하는 정비 상황 △ 호황기에 전력, 철도 등 인프라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단계에 비해 비교적 양호 △ 수준은 낮고 특히 전력 인프라가 취약
지적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단계에 비해 양호
기술 혁신 능력, 산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기술 흡수력 높음 ● 지역 공급업체의 질 ● R&D, 산학제휴 의욕이 상대적으로 강함 △ 독자기술이 낮고, 가격경쟁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계 연구기관의 수준이 높고, 기술자 조달이 쉬움 ● R&D, 산학제휴 의욕이 상대적으로 강함. 기업의 기술 흡수력 높음 ● 원자재 공급업체의 우수성 △ 독자기술이 낮고 가격경쟁 중심

주: 강점 = ●, 약점 = △

또한 WTO가입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및 2010 상하이 세계 무역 박람회 개최 등으로 IT산업 관련제품의 수요가 향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도 제1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정보화로 공업화를 이끌고,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한다'고 언급하는 등 IT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의 IT시장은 놓칠 수

없는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경제도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의 호조와 함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되고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매년 7-9%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IT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영어구사가 가능한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지원정책, 미국과 12시간 시차를 이용한 아웃소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IT산업이 수출 및 인도경제의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2 중국의 IT산업 현황

중국은 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IT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 IT산업의 부가가치는 5,650억 위안으로 국내 생산총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IT제품의 수출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수출총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IT산업 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IT기업들은 매년 16~18%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IT기업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매년 새로운 기업들이 수천 개 탄생하고, IT영재와 스타 IT기업인들을 만들어내는 중관촌과 같은 첨단산업기술단지는 50여개가 넘는다. '5년 내에 새로운 단계로, 10년 내에 일류를 창조 하겠다'는 중국인들의 목표가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축이 섬유 가전 등 전통제조업에서 IT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내 100대 기업 중 반도체,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 IT관련 기업의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네트워크 스위치 등에서 각각 세계 총생산량의 36%, 35%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하드웨어 생산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2.3 인도의 IT산업 현황

1990년대 들어서 급격한 글로벌화의 진전, IT기술의 보급에 따라 저비용을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 내의 단순한 작업은 인도나 중국 등으로 이전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인도는 국가차원에서 R&D와 IT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투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IT아웃소싱 부문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인도의 IT전문가 및 유학생들이 이러한 아웃소싱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인도의 IT시장을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기준으로 GDP의 8.2%, 수출전체총액 중 15.6%가 IT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가 세계무역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1-1992년 0.4%에서 2003-2004년에는 1.36%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수출의 성장이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은 하드웨어산업과 달리, 설비투자와 같은 초기투자가 거의 없다는 점과 인재가 가장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에게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1999년 이후 인도의 IT산업은 매출규모가 연평균 약 28%씩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4년 IT산업의 매출은 210억 달러(1999년 8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IT 산업의 GDP 비중은 5.6%로 성장세에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약적 성장으로 IT산업의 고용 역시 1985년 6,800명에서 2003년 3월 기준 65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III.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인도의 IT산업의 특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과 인도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공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영학 이론(조직이론, 경영전략, 경영정보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중국과 인도 관련 IT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요성공요인을 정의하기 위한 변수를 조직특성, 환경특성, 학습특성, 정책특성, 진출국의 특성, 친디아 진출과정에서 애로요인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은 다시 세부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주요성공요인 문헌 연구

특성	변수	연구자
조직특성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Drucker (1985), Jennings (1994), Poon & Swatman(1999)
	혁신선도자 (Championship)	Grover(1993), Premkumar & Ramamurthy(1995)
	정보기술전문성 (IT Expertise)	Miller & Friesen (1982), Pierce & Delbecq(1977), Damanpour (1991), Premkumar(1999)
	정보시스템 인프라 (IS Infrastructure)	Premkumar & Ramamurthy(1994), Grover(1993)
	정보시스템 성숙도 (IS Maturity)	Grover & Goslar(1993), Ramamurthy & Premkumar(1995), Lind, Zmud & Fischer(1989)

환경특성	산업유형(Industry)	Tornatzky & Klein (1981), Damanpour (1991), Grover & Margulies (1980)
	경쟁압력 (Competitive Pressure)	Premkumar & Ramamurthy (1995), Williams, Ruzicka ,Hershauer & Carter(1997)
	기업의 영향력 (Exercised Power)	Premkumar & Ramamurthy (1995), Williams, Ruzicka ,Hershauer & Carter (1997)
	환경불확실성 (Dynamism)	Miller & Friesen (1982), Kwon & Zmud (1987), Grover & Goslar (1993)
	수직적 연계 (Vertical Coordination)	Gatignon & Robertson (1989), Grover (1993), Robertson & Gatignon (1986)
	정보 집약도 (Information Intensity)	Teo, Tan & Buk (1998), Grover (1993), Porter & Millar
학습특성	경과 시간 (Elapsed Time)	DeLone(1998), Premkumar, Ramamurthy & Nilakanta(1994)
	교육 정도(Training)	DeLone(1988)
	문화에 대한 이해정도	Hall(1966), Hofsted(1980), Laurent(1983)
정책	정부의 지원	Teo, Tan & Wong (1998)
	기업의 기술정책	Teo, Tan & Wong (1998), Ertlie(1983)

IV. 연구 결과

4.1 주요 성공요인

중국의 경우 응답자들은 정보기술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혁신선도자, 기업의 영향력, 산업유형, 한국에 대한 친밀도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시스템 성숙도, 경쟁압력, 산업인프라를 중요하지 않은 성공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인도의 경우 혁신 선도자를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기업의 영향력, 경과시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정도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환경 불확실성, 정부의 지원, 경쟁압력은 중요하지 않은 성공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의 주요 성공요인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중국과 인도의 응답자들 모두 혁신선도자와 기업의 영향력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기술 전문성, 산업유형, 교육정도, 경과시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양국 모두에서 평가되었다.

중국은 인도에 비해 정보기술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큰 자본보다는 반도체, 이동통신 등과 같은 IT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 한국기업의 진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변수 중에서 산업 유형이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는 지역별(각 성별 특화지구)로 집중 육성하는 IT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주요성공요인의 중국·인도 순위 분석

순위	중 국	인 도
1	정보기술 전문성 4.8012	혁신 선도자 4.7971
2	혁신 선도자 4.7001	기업의 영향력 4.6102
3	기업의 영향력 4.6053	경과시간 4.5984
4	산업유형 4.5114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4.5121
5	한국에 대한 친밀도 4.5090	교육정도 4.5110
6	정부의 지원 4.4432	노동력 4.4226
7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4.4120	산업유형 4.4215
8	교육정도 4.2251	정보기술 전문성 4.3015
9	경과시간 4.1141	기업가 정신 4.2236
10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4.0030	정보시스템 인프라 4.1097
11	기업의 기술정책 3.9108	정보시스템 성숙도 4.1024
12	노동력 3.7479	산업 인프라 4.0072
13	수직적 연계 3.7423	수직적 연계 3.8914
14	환경 불확실성 3.5691	정보 집약도 3.7751
15	정보 집약도 3.5601	한국에 대한 친밀도 3.6076
16	기업가 정신 3.5525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3.5019
17	정보시스템 인프라 3.5411	기업의 기술정책 3.5001
18	정보시스템 성숙도 3.3330	환경 불확실성 3.4076
19	경쟁압력 3.2541	정부의 지원 3.1200
20	산업 인프라 3.1012	경쟁압력 3.1112

인도의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현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진출 초기에는 이질적인 문화와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주요성공요인에 반영되어 기업의 영향력, 경과시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2 T-Test

중국, 인도의 응답자들 간에 각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상이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선도자, 산업유형, 경쟁압력, 기업의 영향력, 환경 불확실성, 수직적 연계, 정보 집약도, 교육정도, 기업의 기술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요인 중에서 학습특성(경과시간, 교육정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을 인도의 진출한 기

업의 응답자들이 중국의 진출기업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정책특성(정부의 지원, 기업의 기술정책)을 중국진출 기업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앞서 인구통계적인 요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비교적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현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내의 인프라 부족과 이질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정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중국은 산업인프라 구축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해되고 있는데 비해, 인도는 각 주 단위로 인프라망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의 주정부는 지방자치가 모인 연합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적은편이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인도는 산업인프라(도로, 통신, 전력 등)의 확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도의 IT인력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전문 인력에 치우쳐 있어서 한국 현지기업에 맞는 IT관련 제조·유통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과시간을 비롯한 교육정도, 진출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노동력, 산업인프라 등과 같은 요인이 중국과 비교할 때 강하게 부각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초기진출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성공요인으로 높게 부각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전문성, 정부의 지원,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IT분야 최대 수출국으로 인도 IT시장에 비해 성숙되어 있으며 많은 해외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국 정부의 법제도 등과 같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중국 IT시장 개척에서 정보기술의 전문성과 정책특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요 성공요인의 중국·인도간의 T-Test

주요성공요인	중 국	인 도	t-stat	Probability
기업가 정신	3.5525	4.2236	-3.84	0.0001
혁신 선도자	4.7001	4.7971	-0.34	0.2430
정보기술 전문성	4.8012	4.3015	7.35	0.0007
정보시스템 인프라	3.5411	4.1097	-5.21	0.0001
정보시스템 성숙도	3.3330	4.1024	-11.3	0.0001
산업유형	4.5114	4.4215	0.38	0.4466
경쟁압력	3.2541	3.1112	0.05	0.4587
기업의 영향력	4.6053	4.6102	-0.36	0.4087
환경 불확실성	3.5691	3.4076	0.68	0.5011
수직적 연계	3.7423	3.8914	-0.27	0.8451
정보 집약도	3.5601	3.7751	-0.66	0.2147
경과시간	4.1141	4.5984	-5.61	0.0061
교육정도	4.2251	4.5110	-0.55	0.0075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4.0030	4.5121	-2.56	0.0070
정부의 지원	4.4432	3.1200	6.21	0.0001
기업의 기술정책	3.9108	3.5001	1.79	0.1153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4.4120	3.5019	3.35	0.0001
노동력	3.7479	4.4226	-1.26	0.0002
산업인프라	3.1012	4.0072	-4.68	0.0003
한국에 대한 친밀도	4.5090	3.6076	3.87	0.0001

4.3 회귀분석(진출의 활성화 정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IT기업이 인디아 진출을 위한 주요 성공요인이 진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성공요인 중에서 중국은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인도는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진출의 활성화 정도에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해외기업들의 중국진출에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중국 진출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 정부는 단순 외자도입보다는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중국을 진출할 경우 자국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방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 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본보다는 정보기술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5> 중국·인도 진출기업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측정변수	중 국		인 도	
	Beta값	t값	Beta값	t값
기업가 정신	-0.04111	-0.71320	0.34111	5.11320(*)
혁신 선도자	0.21932	3.32198(*)	0.27252	3.06766(*)
정보기술 전문성	0.33321	4.54235(*)	0.03541	0.93221
정보시스템 인프라	0.13723	2.13434	0.00712	0.70187
정보시스템 성숙도	0.13398	1.83212	0.23733	3.89890(*)
산업유형	-0.05465	-1.13645	0.06521	1.08723
경쟁압력	0.14133	1.72312	-0.06345	-1.77541
기업의 영향력	0.04312	0.98971	0.26422	3.38631(*)
환경 불확실성	0.03223	0.98291	0.03099	1.10001
수직적 연계	0.12321	1.83902	0.09271	1.39910
정보 집약도	0.03411	1.45322	-0.07421	-1.10211
경과시간	0.12321	1.57543	0.08452	1.08843
교육정도	0.01323	0.97392	0.20877	3.08731(*)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0.06121	-0.95473	0.17654	2.01432(**)
정부의 지원	0.23121	3.54212(*)	0.01014	0.16479
기업의 기술정책	0.08416	1.01463	0.01646	0.17646
해당국가 정부의 지원	0.19823	2.00123(*)	0.02463	0.31463
노동력	0.32143	4.10292(*)	0.08796	0.94646
산업인프라	0.02143	0.57421	0.07644	0.84613
한국에 대한 친밀도	0.34142	3.83648(*)	0.01464	0.23544
R Square	0.3246		0.4213	
Adj. R Square	0.2984		0.3413	
F	9.0416		14.5644	

*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

인도의 경우 진출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진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한자를 공유하고 역사·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유사한 문화권을 유지해온 중국과는 달리 인도는 지리적으로 멀고, 한국과 다른 언어, 풍습,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인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 중국의 경우 혁신선도자, 정보기술 전문성, 정부의 지원, 노동력, 한국에 대한 친밀도에서, 인도의 경우 기업가 정신, 혁신선도자, 정보시스템성숙도, 기업의 영향력, 교육정도에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중에서 혁신선도자는 양국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가 모두 거대한 신규 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혁신선도자를 통한 사내의 해외 진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이다.

중국의 경우는 IT시장이 도입단계를 지나서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싼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국내나 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에서 정보기술의 전문성과 노동력이 진출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진출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내의 이질적인 문화와 특수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R&D의 투자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상당한 고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5.1 연구의 시사점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IT기업의 친디아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산업의 해외진출은 사회적·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기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하는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즉 정부는 친디아 진출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친디아 IT산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수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외 진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표함으로써 해당기업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유사한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여 기업이 친디아 IT산업에 진출에 활용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친디아 IT산업 진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려면 보다 통일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친디아 IT산업 진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가진 단체가 없다. 정부의 각 부처가 각자의 정책목표에 맞는 입법과 세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중복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부처들 간의 특성화된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적인 친디아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일된 추진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Douglas, S. P. and Craig, C. S.(1983), "Examining Performance of U.S. multinationals in Foreign Markets," *Journal of Business Studies*, 14, 51-62.
- Gatignon, Hubert and Robertson, Thomas S(1989). "Technology Diffusion: An Empirical Test of Competitive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53, 35-49.
- Grover, Varun, and Goslar, Martin D.(1993), "The Initi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U.S.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0(1), 141-163.
- Kwon, Tae H. and Zmud, Robert W(1987), "Unifying the Fragmented Models of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Critical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0.
- Premkumar, G., and Ramamurthy, K.(1995), "The Role of Interorganiza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the Decision Mode for Adoption of Interorganizational Systems," *Decision Sciences*, 26(3), 303-335.
- Premkumar, G. and Robert, Margaret(1999), "Adop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n Rural Small Businesses," *Omega*, 27, 467-484.
- Robertson, Thomas S. and Gatignon, Hubert(1986), "Competitive Effect on Technology Diffusion," *Journal of Marketing*, 50, 1-12.
- Teo & Tan(1998),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2(3). 5-18.
- Tornatzky, Louis G., & Klein, Katherine J.(1982),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doption Implementation: A Meta-Analysis of Finding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29(1).
- Vasudevan, Satish P.(1990), *Init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s*,
-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2006), *BRICs経済の成長と世界経済への含意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研究会報告書, 16.